

# 재계 힙쓰 女風 100대기업 신규 사외이사 32% '여성'



## 한국CXO연구소 조사

국내 100대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신규 선임한 사외이사 3명 중 1명은 여성이었다. 국내 대기업에 여성 사외이사 속속 합류하고 있는 모습이다.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는 '2021년 국내 100대 기업 여성 사외이사 현황 조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이 도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대상 기업은 매출(개별 및 별도 재무제표 기준) 100대 상장사다. 지난해(2020년 3분기 기준)와 올해 현황을 비교 조사했다. 2021년 현황은 각 기업이 최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제출한 주주총회 소집 결의서에 공시한 사외이사 선임 여부 등을 참고했다.

올해 100대 기업이 금감원에 공시한 주총 결의서를 분석해보니 재선임 및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는 모두 16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63명은 임기가 만료됐지만 올해 재선임 된 경우다. 97명은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 97명을 성별(性別)로 살펴보면 남성 66명(68%), 여성 31명(32%)으로 구분됐다. 3명 중 1명꼴로 여성 사외이사가 선임됐다는 의미다. 지난해까지 활동했던 여성 사외이사는 35명이었다. 이중 7명은 임기만료로 물러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명 중 7명을 제외한 28명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외이사직을 수행할 전망이다. 이들 28명과 이번에 새로 선임된 31명을 더해 총 59명의 여성 사외이사가 올해 활약하게 됐다.

이 경우 100대 기업 전체 사외이사(440명 기준) 중 여성 비율은 지난해 7.9%에서 올해는 13.4%로 1년 새 5.6%p 높아진다. 여성 사외이사를 배출한 기업 숫자도 100곳 중 지난해 30곳에서 올해는 50곳으로 많아진다. 100대 기업 중 절반은 최소 1명 이상의 여성 사외이사를 전면 배치하는 셈이다.

고 전망했다. 여성 임원과 사외이사 경력을 가진 후보군이 아직은 적어 전문성이 높은 학사 출신을 영입하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올해 신규 선임한 100대기업 내 최연소 여성 사외이사는 롯데쇼핑에서 영입한 전미영 트렌드코리아컴퍼니 대표이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 대표는 1981년생으로 'MZ세대'에 속한다. 키움증권에 합류한 최선화 서울대 경영학교수는 1978년생, LG유플러스에 합류한 제현주 옐로우독 대표이사는 1977년생으로 45세 이

를 가장 많이 배출해 여성의 이사회 진출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에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 조교수, 기아에 조화선 연세대 정치외교학 교수, 현대모비스에 강진아 서울대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 현대건설에 조혜경 한성대 IT융합공학부 교수, 현대제철에 장금주 서울시립대 경영대학 교수 등이 현대차 그룹에 새로 합류한 여성 사외이사들이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오일선 소장은 "2022년에도 100대 기업에서 150여 명의 사외이사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중 신규 영입되는 여성 사외이사는 올해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여성들을 등기임원으로 전면 배치해 기존의 거수기로 상징되는 이사회 문화를 혁파해나가고 투명하고 책임 있게 경영 활동에 참여하게 하려면 사외이사들에게 좀 더 많은 기업 정보 등을 제공하는 방안 등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별(性別) 구분 없이 올해 100대 기업 내 신규 선임된 전체 사외이사 97명 중 10여 명은 장차관급 이상 고위직을 역임한 인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으로 에스-오일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삼성물산은 최경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호 텔신라와 현대미포조선은 주영환 전 산업통상부 장관, CJ대한통운은 임종룡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HDC현대산업개발은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사외이사로 새로 선임했다.

강주현 기자

## 100대 기업 여성 사외이사 작년 35명→올해 59명으로

여기에 100대 기업 내 여성 사내이사 4명까지 포함할 경우 100대 기업 전체 이사회(사내사외이사) 멤버 중 여성은 2020년 39명(33곳)에서 2021년 63명(54곳)으로 증가한다. 100대 기업 이사회(756명 기준) 중 여성 비율도 지난해 5.2%에서 올해 8.3%로 높아진다.

올해 신규 선임된 여성 사외이사 31명 중 18명(58%)은 50대로 구분됐다. 현직 교수 등 학계 출신이 22명(71%)으로 다수를 이뤘다. 신규 선임되는 여성 사외이사 중 상당수가 50대이면서 대학 교수 출신이라는 얘기가.

CXO연구소는 학사 출신을 선호하는 추세가 내년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 여성 사외이사 그룹군에 속했다.

주요 고위직 출신 여성으로는 유영숙 포스코 사외이사 대표적으로 꼽힌다. 환경부 장관 출신인 유 사외이사는 최근 정밀화학 생명공학기업인 마크로젠 사외이사로도 선임됐다.

이정미 금호석유화학 사외이사는 헌법 재판관 출신이다. 조배숙 삼성생명 사외이사는 판사 출신이면서 4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인실 한화생명 사외이사는 통계청장을 역임했다. 조희진 GS건설 사외이사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출신이다.

그룹별로 살펴보면 100대 기업 중 현대차 그룹 계열사에서만 5명의 여성 사외이

# '성폭행·임금체불·노동법 위반' 제일약품 성석제 리더십 도마

(제일약품 대표이사)

제일약품이 임원 성비위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가운데 성석제 제일약품 대표이사(사장)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회사의 호(好)실적을 이끌어 냈지만 덩치만 키웠을 뿐 이익구조는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직원의 비위 문제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거세다.

16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성석제 사장은 2005년부터 제일약품 대표이사직을 수행 중인 업계 대표 '장수 CEO'로 알려졌다. 취임 초부터 2019년까지 회사 매출을 3배 가량 늘린 공로 등을 인정받았다. 지금까지 6번 연임했다.

한국화이자제약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화이자 약을 제일약품에 도입해 회사 매출을 이끌어 낸 것으로 분석됐다. 한승수 제일약품 회장, 한상철 제일약품 부사장 등 오너일가의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회사 호실적을 견인했다. 지난해 제일약품 영업이익은 약 130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55배나 상승했다. 당기 순이익도 70억원 수준으로 흑자전환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상황이 특수했던 지난해를 제외

## 제약업계 '장수 CEO' 명예 이면 회사 이익구조 악화 명예 사내 성폭행 논란으로 물의... 조직문화 개선 등 과제 산적 '역할론' 중심에 선 성석제, 성남시 분당 20억대 주택 재력

하면 제일약품은 그간 이익률 부문에서 부진했다. 제일약품 영업이익은 2018년 63억원 수준에서 2019년 2억원대로 추락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이 500억원 가량 상승한 것과는 상반된다.

화이자, 다케다 등 외국 제약사들의 의약품 도입에 관대하는 사업구조가 영업 이익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과 2019년 제일약품이 자체 개발한 의약품의 매출(제품매출)은 각각 1354억원, 1511억원 등이다. 같은 기간 다 기업으로부터 도입한 의약품의 매출(상품매출)은 4890억원, 5175억원 등이다. 외부에서 가져온 의약품으로 매출 대부분을 발생시키다 보니 온전한 이익을 내지 못하는 셈이다.

실제 이 기간 중 제일약품은 다케다 등 외국 제약사들에 지급한 로열티만 각각 31억원, 18억원 등이다. 회사가 벌어들인 이

익에 맞먹을 정도의 금액을 외국 제약사 등에 로열티로 지급해 왔다. 지난해에도 제일약품은 로열티로만 229억원을 지급했다. 신약, 신기술 등을 개발하고 회사 이익 구조를 개선하는 게 성 사장의 주요 과제로 지목된다.

또 성 사장은 조직문화 개선 등으로 내부 분위기를 환기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경험 등에 대해 익명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전체 직원 중 응답 직원(91.6%)의 11.6%가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본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53.9%는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제일약품은 최근 3년간 전·현직



성석제 대표이사 사장

직원 341명에게 각종 수당, 퇴직금 등 금품 15억여원을 체불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금지 위반 등 사례도 확인됐다.

제일약품은 연초 임원의 성폭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제일약품 임원이 여직원을 무려 4년간이나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여론의 공분을 샀다. 제일약품 조직구조에 대한 비판과 함께 성 사장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성석제 사장의 이력, 과제 등이 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가운데 그의 재력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성 사장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2층 규모 단독주택을 소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 사장 소유 주택의 규모는 1층 109.14㎡(약 33평), 2층 155.95㎡(약 47평), 지하 1층 113.54㎡(약 34평) 등이다. 주택 대지면적은 435.8㎡(약 132평)이다.

성 사장은 해당 주택을 2015년 매입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시 매입가는 20억원이다.

성 사장 소유 주택은 분당 구미동 타운 하우스 단지와 밀접한 곳에 위치해 있다. 고급 주택, 타운하우스 등이 다수 위치해 있는 이곳 일대는 조용하면서도 자연친화적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학교, 병원 등 시설이 가까이 위치해있고 도심과 거리가 멀지 않다. 그만큼 서울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성 사장 소유 주택의 현재 시세는 약 26억원으로 분석됐다. 다만 주택 거래 특성상 거래 당사자들의 의사 등에 따라 실거래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해당 부동산 관계자의 설명이다.

강주현 기자

## KT, 15개 중소·벤처 육성 '비즈 콜라보레이션' 시행

KT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공동으로 DX(디지털혁신) 신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비즈 콜라보레이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16일 KT에 따르면, '비즈 콜라보레이션'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협업 가능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 아이디어 구상 단계부터 KT 유관 사업부서와 매칭해 공동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KT는 '비즈 콜라보레이션'을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 5회째 지속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63건 벤처기업과 공동 사업 과제를 수행했고 이 중 6개 벤처기업에 후속 지원부자를 진행한 바 있다.

KT는 '디지코(Digico)'로의 변화와 성장 가속화를 위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미디어, 금융, 로봇, 헬스 등 사업에 집중, 올해는 해당 분야의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들을 중심으로 선발한다.

총 15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며, 오는 9월 초까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접수페이지를 통해서 수시 지원을 받는다. 선정된 기업은 연구개발, 특허출원, 시제품 제작, 마케팅·홍보비용으로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선발 이후 후속 심사를 통해서 최대 3000만원의 추가 지원받으면 총 지원 혜택이 1억원에 달한다.

신규직 KT SCM전략실장은 "비즈 콜라보레이션은 2017년부터 지속하고 있는 KT의 대표적인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ABC 중심의 성장 신사업 발굴에 집중할 것이다"며 "잠재력 있는 중소·벤처 기업과 함께 새로운 디지털 혁신(DX) 서비스를 만들어 디지코(Digico)기업으로 성장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창현 기자

## 1~2월 실적 공개한 씨젠, 유럽 코로나 재유행 호실적 전망

### 2월 누적 매출액 2236억원 전년 동기 대비 8배 증가 "씨젠 주가 저평가 상태"

최근 유럽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발생하면서 진단키트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4분기 기대에 못미치는 실적으로 주가 하락에 시달렸던 씨젠의 기업가치도 재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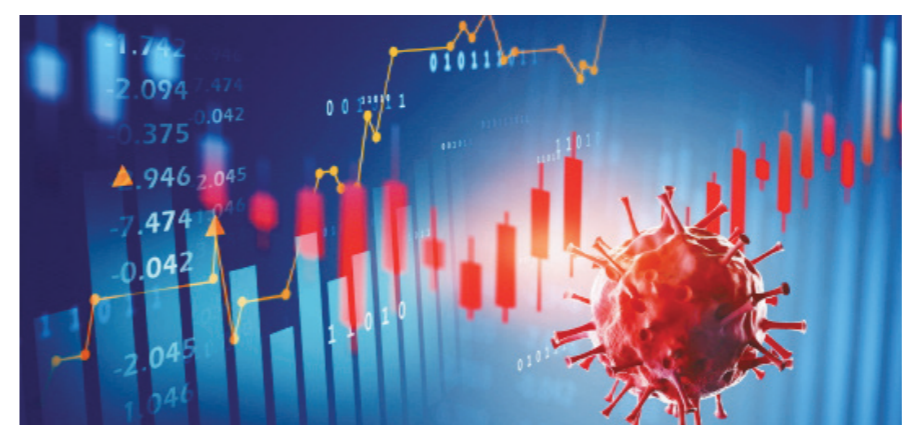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씨젠은 1월과 2월 잠정실적을 공개했다. 1월과 2월 씨젠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각각 1270억원, 966억원이다. 누적 매출액으로 따지면 전년 동기 대비 8배 증가한 수치다.

씨젠이 이례적으로 월별 실적을 공개한 건 지난해 4분기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폭락했던 걸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증가하면서 팬데믹 종식 기대감에 진단키트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각종 주주친화정책 발표 이후에도 주가가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독일과 이탈리아가 다시 코로나19 확산세에 돌입하면서 3차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봉쇄를 완화했던 유럽국가들은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자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전파력이 빠른 영국발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백신 바이러스를 단 시간 내 종식시키지는 못한다"며 "2021년에도 씨젠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24%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러 "현재 씨젠의 주가는 싸도 너무 싸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투는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의 비율이 높은 점,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 특성상 진단키트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서 백신 개발 이후에도 씨젠의 성장세가 이어질 경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한솔 기자